

• 풍향계 •

삼보 이용태 회장과 대덕밸리의 만남



▲ TG 이용태 회장(왼쪽)과 연합회 백종태 회장(오른쪽)

삼보컴퓨터(TG)의 이용태 회장이 대덕밸리 기업인들과 만났다. 대기업 회장이 대덕밸리에서 벤처기업인들과 공개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G측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하여 신사업 개발단 이동욱 단장 등 간부와 실무진들이 배석했다. 대덕에서는 대덕밸리벤처연합 백종태 회장과 제품 설명에 나선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에는 예원테크 원찬희 대표, 베리텍 한미숙, GG21 이상지, 옥성전자 박배옥, 에이팩 송규섭 대표 등이 나섰다.

이번 행사는 TG와 대덕밸리 벤처기업간 협력 관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용태 회장은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말씀을 열었다.

이 회장은 “실리콘밸리만큼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대문시장의 경우를 보면 관련 분야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면서 “벤처기업도 거미줄처럼 잘 짜여진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연구개발이 뛰어난 벤처기업들이 TG의 핵심경쟁력과 만나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TG의 핵심 경쟁력은 대량구매를 통한 대량생산,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한 신뢰성에 있는데 이를 벤처기업들이 활용하면 ‘원-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TG는 현재 경기도 안산과 중국의 심양, 그리고 일본의 요코하마, 미국의 실리콘밸리, 멕시코의 엘파소, 호주의 시드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

이 회장은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제품을 제대로만 아웃소싱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벤처, 해외 현지법인 설립 ‘붐’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법인을 잇따라 설립하고 있다.

무선통신 전문 업체인 기가씨앤이(대표 최각진)는 지난 10월 미국 LA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현지법인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선 도어록 ‘IRK-2000’을 현지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매달 2천여 개의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비전(대표 유상근)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미국 컨설팅사인 PPI와 공동으로 ‘AVC’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해 미국에서 본격적인 판매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미 한비전이 생산하는 산업용 카메라를 미국 전지역에 샘플 공급하고 있으며 10여개의 판매 대행사를 지정하는 등 활발하게 시장 공략을 벌이고 있다.

무선보안 제품을 내놓은 메닉스(대표 이상수)는 일본시장을 타깃으로 한 해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무선보안제품 ‘사이버아이’로 일본시장 공략에 나섰다. 메닉스는 현지인 3명과 일본의 종합무역상사 SETRON과 공동으로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거대 중국시장에 현지법인을 세움으로써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

에어베어링 스피들 전문 벤처기업 예원테크(대표 원찬희)는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의 북경과 심천 인근의 하문시에 설립된 현지법인은 생산기지이자 중국시장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최각진 대표는 “제품 자체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서 승부를 걸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설립하게 됐다”며 “해외시장 개척만이 벤처기업의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풍향계 •

대덕밸리 서울사무소 내달 오픈

충청하나은행(대표 최성호)은 서울 테헤란로의 하나은행 고객센터 빌딩 내에 80여평 규모의 대덕밸리 서울사무소를 조성키로 했다.

이번 서울공동사무소 개소는 마케팅과 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에게 공간을 사용하게 하기 위한 마련된 것이다.

충청하나은행은 대전시와 대덕밸리벤처연합회(회장 백종태)와 협의해 다음달 초쯤 대덕밸리 서울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서울사무소는 2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동시에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소회의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KT 마크 5개 기업 추가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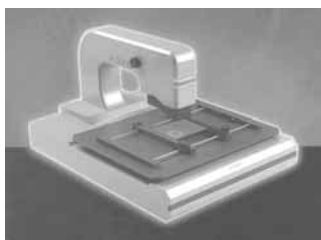
대덕밸리 벤처기업 5개사가 'KT마크'를 신규로 획득했다. 이로써 올 한해 KT마크를 획득한 대덕밸리 벤처기업은 총 19개사이다.

이번에 KT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전기전자분야의 카오스(원격 자동검침을 위한 울트라 스위칭 기술과 TSMA기술)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소프트4소프트(C 자바언어용 테스트를 위한 코드분석기술), 아라기술(고성능 인터넷 웹캐싱을 위한 이벤트 기반 다중 Thread 관리기술) 등이다.

또 기계분야에선 케이맥(다층박막의 두께형성 및 굴절율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반사광 도계)과 소재분야의 휴먼일렉스(고압 수분사법에 의한 비정질 합금분말을 이용한 연자성 자기소자 제조기술)가 선정됐다.

• 신제품/신기술 •

파미, 3차원 검사장비 'SPI 2000' 출시



파미(대표 황석용)가 SMT 라인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부품 검사장비 'SPI 2000'을 출시했다. 이 장비는 PCB 표면 실장 기판에 입혀진 납형상을 3차원 레이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 수 μ m급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자동검사장치다.

기존 제품들이 접촉식 검사장비였던 것에 비해 이 제품은 레이저 센서를 통한 비접촉식 방식을 적용해 정밀도와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납의 양과 높이, 깊이, 구역 등 세밀한 부분까지 측정할 수 있어 SMT 라인의 공정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납형상의 정밀도를 3차원 그래픽으로 비주얼화시켰다는 것이다. 레이저 빔으로 물체를 조사해 패턴을 인식한 다음 3차원 좌표값(X, Y, Z)을 비접촉 광학식으로 추출해 3차원 스캐너를 통해 물체의 형상 정보를 3차원 그래픽으로 표현해 준다.

문의 : 042-478-9900

아이티, IMT2000 중계기용 광전송모듈 수주



광통신 전문 기업 아이티(대표 서승관)가 이스텔시스템즈와 기산텔레콤 등에 15억원 규모의

IMT디지털중계기용 광전송 모듈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광전송 모듈은 KT아이컴이 수도권에 대한 IMT 2000 서비스를 위해 설치하는 장비에 탑재되는 핵심모듈로 12월까지 공급이 완료되며 추가공급은 내년 1분기로 예상된다.

아이티는 앞으로 1개 기업으로부터 추가 수주가 예상됨에 따라 KT아이컴 IMT 2000 디지털중계기용 광전송모듈 초도물량을 모두 수주할 전망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서사장은 "이번 광전송 모듈 공급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IMT 2000 서비스관련 장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KT아이컴은 내년 6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 15개 지역에서 IMT2000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042-360-3625